

불안한 시대 속 '나'를 찾아가는 여정

2022년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기획전시 '그림에도 불구하고'展...오는 27일까지

김혜민·김솔 학예인턴 기획
김소희·임송은 작가 참여

예측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드영미술관은 2022년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기획전시 '그림에도 불구하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약 1년간 연수를 거친 학예인턴 김혜민, 김솔의 결과보고전이다. 두 사람은 학예사의 지도 아래 전시·교육·수집·연구 등 미술관 업무 전반에 관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전시에는 광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작가 김소희, 임송은이 참여한다. 그동안의 색이 담긴 회화 및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임송은작 'Flowing mountain 12'



김소희작 '마주하다' <드영미술관 제공>

를 이야기한다.

작가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태도 중 하나인 '편견'에 주목한다.

작가는 인간의 고정관념이 객관적이고 유형화된 지표에 사로잡혀 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작가는 의도적으로 흘러내린 화면을 구성하는데, 이를 통해 개개인의 특성 또한 물감의 유동적인 형태처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타인과 나 사이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를 넘어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작임을 의미한다.

김혜민·김솔 학예인턴은 "예측할 수 없는 현대 사회에 자리한 수많은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경쟁구도를 안에서 불안함과 우울감을 느끼곤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나'를 찾고 삶의 의미를 고찰해보는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최명진기자

전시명 '그림에도 불구하고'는 현대 사회에서 오는 어려움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이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 속에서 불안을 느낀다. 현대 사회 사람들은 MBTI와 같은 각종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기질과 성향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지만, 그러한 지표는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에 한계를 지닌다.

이번 전시는 이처럼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

됐다.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내적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소희는 현대 사회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주목하고,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

작가는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을 홀로 서 있는 인물과 단조로운 모노톤의 화면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눈'(雪)으로 나타낸다.

눈이 녹아 물이 되고 증발돼 사라지듯, 작가는 인간의 외로움 또한 눈처럼 증발돼 무너지고 그로써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한다.

임송은은 온전한 나를 알아가기 위한 인간의 태도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매주 토요일 중앙초 대강당에서 연주 연습하는 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

민주·인권·평화를 노래하다

오늘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가 5일 오후 7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는 광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을 통해 다음 세대에 5·18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난해 5월 창단된 단체다.

박영자 대표를 비롯해 단장 김상집, 예술감독 임복희, 지휘 인현동, 바이올린 박솔기, 비올라 정정숙, 첼로 박후남, 더블베이스 류수경 강사의 재능기부로 연주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공연은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대상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 중앙초 대강당에 모여 일년 간 갈고닦은 결과물을 선보이는 자리다.

공연은 동심을 노래하는 모음곡 '동요 메들리'로 막을 울리며 다음으로 한

국의 대표민요 '아리랑'이 울려 퍼진다. 이어지는 공연은 바리톤 노시내와 협연하는 '오월의 연가'다. 1980년 5월 당시 전남일보 취재기자였던 류상수 씨가 작사·작곡한 곡으로 40여년 간 가슴에 묻어둔 아픔과 고통을 노래로 만들어 이번 오케스트라와 함께 초연한다.

미국 북동부 대학에서 불려졌던 곡인 '우정의 노래', 나주시민합창단이 선사하는 민중가요 '아침이슬'과 '민중의 노래'가 잇따라 무대에 오른다. 이어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등 '클래식 메들리' 무대가 펼쳐지며, 공연의 대미는 요한스트라우스 1세가 작곡한 '라데츠키 행진곡'으로 장식한다.

김상집 광주5·18청소년오케스트라 단장은 "이번 공연을 통해 5·18을 겪은 세대의 상처와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5·18청소년오케스트라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멋진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진강(5)

노의영의 캐버스산책



전북에서 가장 오지인 '무진장' (무주·진안·장수)은 금강과 섬진강 발원지다. 전북의 지붕격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섬진강 중에서도 화산의 경치가 매우 빼어나다. 구름 위로 산 봉우리가 접점이 하늘에 박혀 있는 모습은 절경이다. 중국의 어느 동양화에서

전북에서 가장 오지인 '무진장' (무주·진안·장수)은 금강과 섬진강 발원지다. 전북의 지붕격으로 해발 1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다. 여기에 섬진강과 금강의 발원지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섬진강 중에서도 화산의 경치가 매우 빼어나다. 구름 위로 산 봉우리가 접점이 하늘에 박혀 있는 모습은 절경이다. 중국의 어느 동양화에서

본 듯 하다. 화산은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주변에서 가장 산세가 빼어난 산에 속한다. 달밤에 강에 비친 모습은 정말 아름답다.

화산용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노인 형상의 바위가 강을 내려다 본다. 마을 사람들이 신령으로 받들고 있는 이 바위는 수시로 빛깔이 변하는 신비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풍년에는 희고 아름답지만 흥년이 들 때면 검은 색을 띤다. 또 큰 불이 난다거나 전염병이 퍼져 인명 피해가 많은 해에는 파란색을 띠며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붉은 색깔을 띤다고 한다.

거기서 한참동안을 걸어가면 마을이 나온다. '꽃여울 달여울 마을'이다. 아름다운 우리말의 이름이 정겹다. 물에 대한 노자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물은 모든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높고 깨끗한 곳에 있으려 하지 않고 항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고 더러운 곳에 스며든다. 이러한 물의



'섬진강'

성질은 도에 아주 가깝다. 물과 같은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처신을 겸손하게 하고, 마음 가짐을 고요하게 하며, 널리 베풀되 보답은 바라지 않고, 말은 진실돼 망령되지 않게 하며, 정치에서는 좋은 성과를 얻고 일에서는 좋은 효과를 거둔다. 물은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잘못이 없다. 섬진강에 오니 저절로 도에 가까워진다.

<섬진강에서 화가 노의영>

신화 속 이야기로 만나는 클래식

8일 광주시향 GSO 오티움 콘서트 'Mythos'

클래식 음악을 편안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VI, 'Mythos'가 8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 2회에 걸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오티움 콘서트' 여섯 번째 이야기 시리즈 'Mythos'(신화)에서는 신화 속 이야기 담겨있는 클래식 음악을 음악칼럼니스트 이지영의 해설로 쉽고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 있다.

부지휘자 김영언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 날 무대는 베토벤의 프로메테우스 서곡으로 포문을 연다.

이러 국내외에서 절정의 기량을 펼치



고 있는 카운터테너 정민호(사진)의 협연으로 오르페우스의 아리아 무대가 펼쳐진다.

공연의 피날레는 모차르트 교향곡 41번 C장조 '주피터' 1, 4악장으로 장식한다. 제우스를 표현하는 명곡이다.

티켓은 전석 1만 원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24-5086.

/최명진기자

함께 이하는 세상,
로 우리가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새로운 청사로 이전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을 위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고객 곁으로 다가겠습니다.

새청사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68 20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업무개시일 2022. 11. 21. (월)

** 새로운 청사에는 광주디지털훈련센터(19층)가 함께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교통편

지하철 양동시장역 하차 (도보 400m) 1호선 이용

버스

천교 하차 시 (도보 90m) 59, 31, 71, 61, 65, 79, 177, 100,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번 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062-448-1199